정책리포트
제284호 2019. 9. 23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최 봉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ISSN 2586-484X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84호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9월 23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 9. 23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84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

최 봉 선임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추석 경기 진단	19
	부록: 2019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28

요약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하락

2019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며, 전 분기(0.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5.3%로 하락세가 큰 편이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9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했지만,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2% 증가하였다. 7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 증가한 515만 3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2.8% 증가한 88만 2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9년 3/4분기 92.2로 전 분기 대비 0.5p 소폭 하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p 하락한 84.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0.6p 하락한 88.2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하락한 66.7,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보다 3.3p 하락한 76.2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1.7로 전 분기에 비해 3.1p 하락하였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 대비 1.5p 하락한 94.6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순자산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하락하였지만,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에 이어 상승하였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1순위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바라는 과제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이 39.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소비심리회복'(26.1%), '취약 소외 계층 배려'(13.5%), '먹거리 안전 강화'(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의 예상 지출액은 '20만~50만 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다.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이 51.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추석 상차림비'(21.2%), '명절 선물비'(20.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는 1순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52.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전통시장'(33.6%), '슈퍼마켓'(4.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하락

2019년 2/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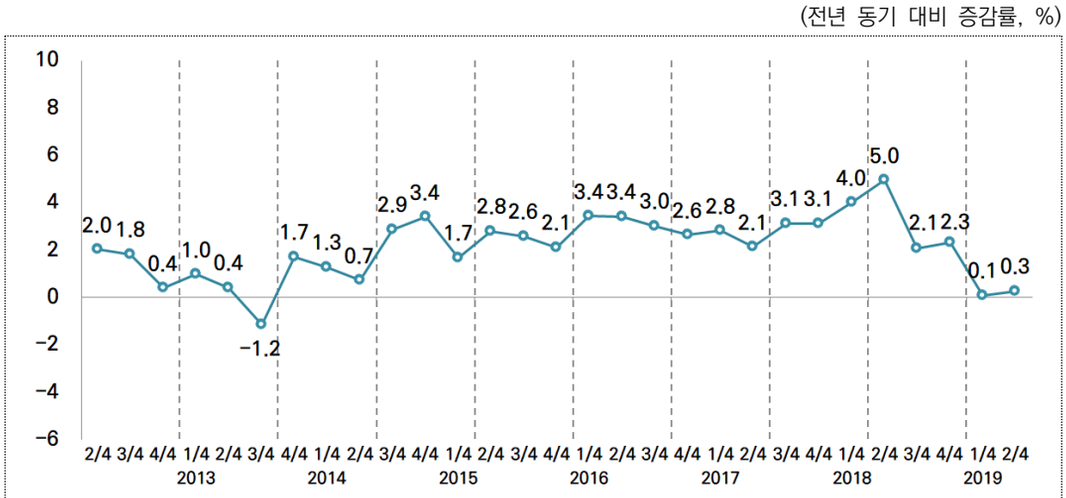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0.3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3% 증가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며 전 분기(0.1%)에 비해 소폭 상승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4%)만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을 뿐, 정보통신업(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1%), 숙박 및 음식점업(0.9%), 도매 및 소매업(0.5%) 등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감소
- 특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8.6%)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2019년 7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0.9로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

- 「제조업생산지수」는 2019년 7월 전년 동월보다 1.7% 감소하며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기록
-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5.3%로 하락세가 지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1)]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다.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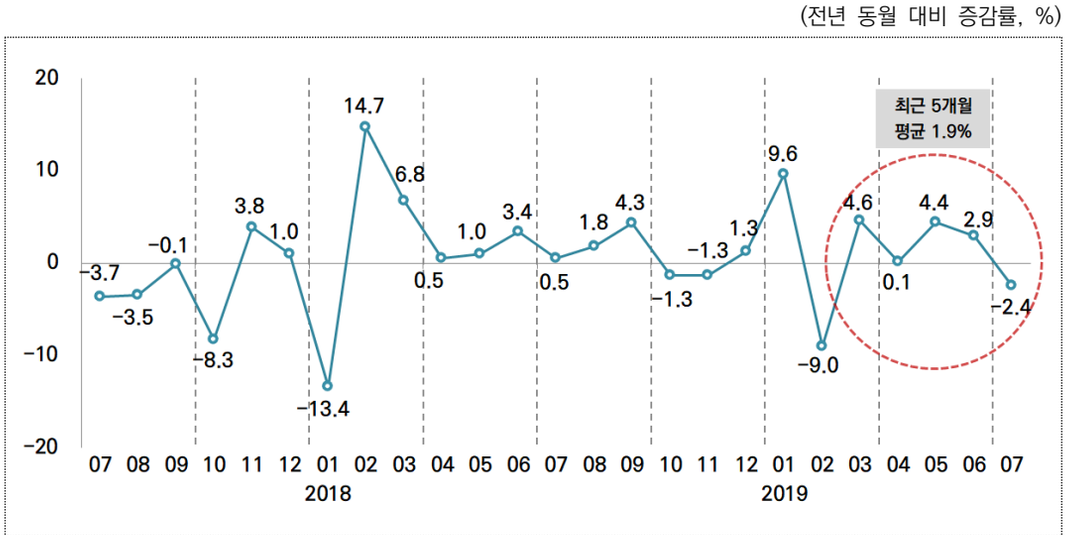
○ 2019년 7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는 92.1로 전년 동월보다 2.4% 하락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5% 이하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7월 들어 다시 소폭 하락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9%에 불과

○ **부문별로 보면, 7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2%나 감소**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94.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5.6%로 높은 편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88.2로 전년 동월 대비 10.2%나 감소하는 등 4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4.5%로 하락세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

○ 2019년 7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3]는 51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510만 2천 명)보다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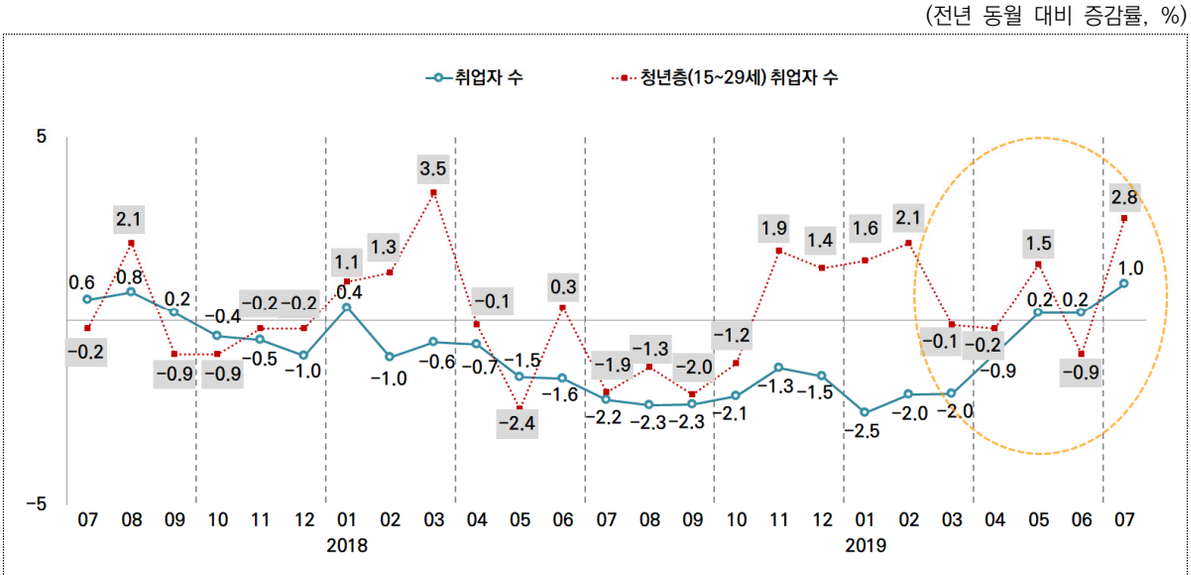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0.3%로 저조

○ 2019년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5만 8천 명)보다 2.8% 증가한 88만 2천 명 수준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8%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0%를 기록

○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좀 더 큰 것으로 조사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다.

Ⅱ.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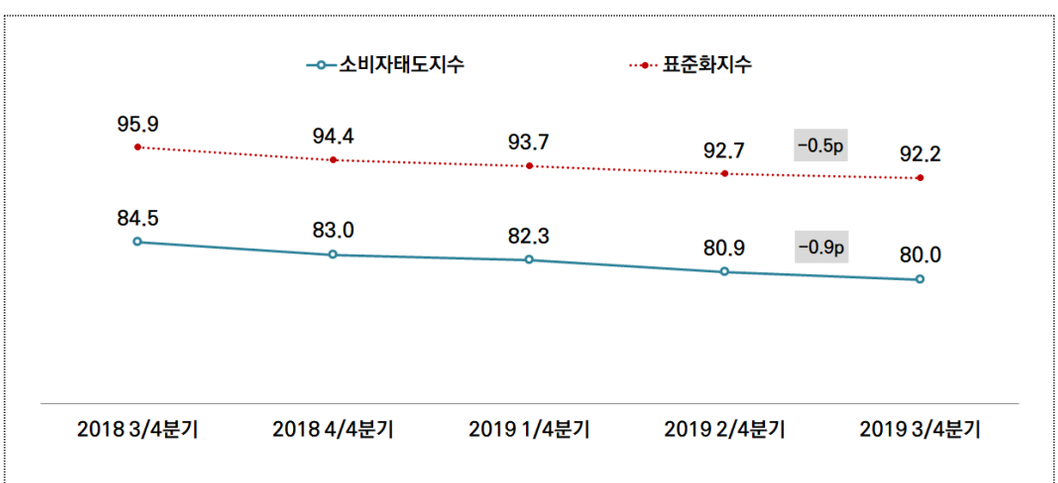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2019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4] 기준 92.2로 전 분기 대비 0.5p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5p 하락한 92.2로 2018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2018년 1/4분기 이후 지속해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만 전 분기 대비 2.4p 상승하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3/4분기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 향방은 고용지표의 개선 정도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

- 최근 1년간 「소비자태도지수」의 추세는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앞으로 고용지표가 지속해서 개선된다면 반등할 가능성 존재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는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의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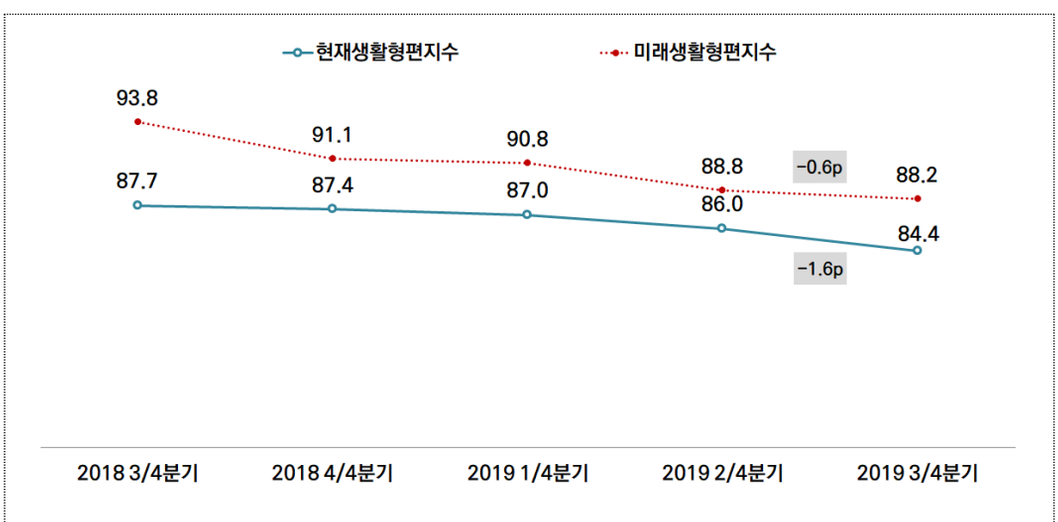
현재생활형편지수·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 2019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6p 하락한 84.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6p 하락한 88.2를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볼 때 연 가구소득 7,200만 원 이상 가구만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소폭(0.5p) 상승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
- 연령별로 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4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증가하고 50대 이상은 전 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50대는 전 분기 대비 4.2p로 가장 크게 하락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경기 불황

- '경기 불황'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가계소득 감소'(27.1%), '지출비용 증가 예정'(10.8%), '가계부채 증가'(8.0%), '물가 상승'(6.8%)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만~6,000만 원 미만 가구는 '경기 불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의 '가계소득 감소' 응답비율이 다른 가구에 견줘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기 불황' 및 '가계소득 감소'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60대는 '경기 불황'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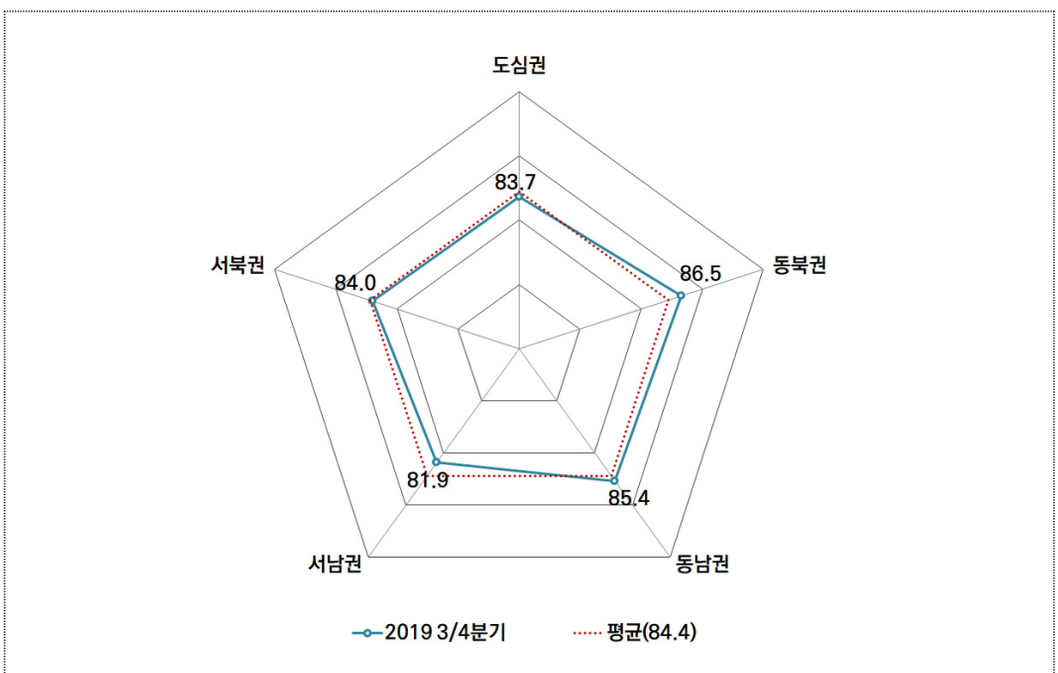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제일 높지만, 권역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

○ 2019년 3/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86.5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동남권(85.4), 서북권(84.0), 도심권(83.7), 서남권(81.9) 순으로 모든 권역이 80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

○ 2019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이 2/4분기 대비 7.2p로 가장 크게 상승

- 도심권이 7.2p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남권도 0.8p 소폭 증가
- 나머지 권역은 서남권(-4.7p)이 가장 크게 하락한 가운데, 동북권(-1.8p)과 서북권(-0.9p)도 소폭 하락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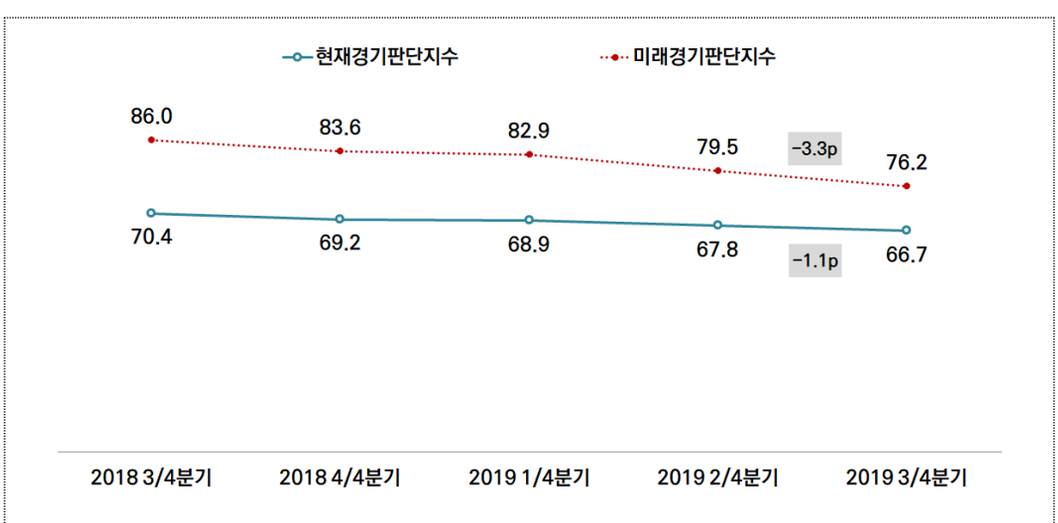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2019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6.7로 전 분기 대비 1.1p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며, 6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서울의 제조업이 지속 하락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답보인 상태에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대외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만 전 분기 대비 8.7p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전 분기보다 감소
- 연령별로 본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0대 이하만 전 분기 대비 7.0p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한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4.4p로 가장 크게 하락

○ 2019년 3/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76.2로 전 분기 대비 3.3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지속적인 하락세로, 최근 5분기 연속 하락하며 전 분기에 이어 70대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만 2.6p 상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60대가 -5.6p로 가장 크게 하락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등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등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이 23.0%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20.7%), '세계경기 하락'(20.6%) 순으로 모두 20% 이상을 기록
- '세계경기 하락'은 전 분기 8.7%에서 11.9%p나 상승하며 '막연한 불안감'(9.3%), '부동산 경기 부진'(9.0%)보다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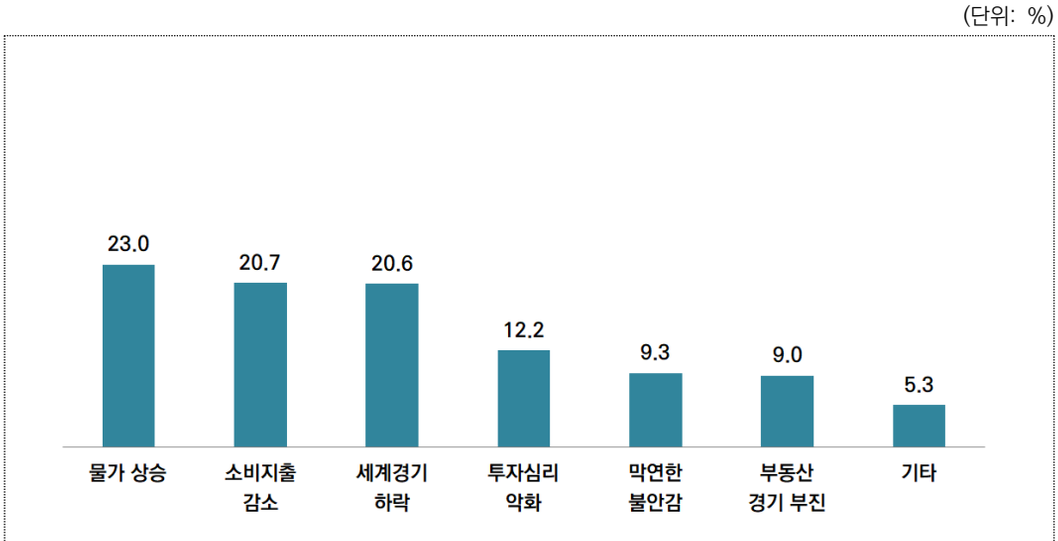
○ 소득수준이나 연령대별로 경기 악화 전망에 큰 차이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과 4,800만~6,000만 원 미만은 '물가 상승'을, 2,400만~4,800만 원 미만은 '세계경기 하락'을, 6,000만 원 이상은 '소비지출 감소'를 각각 주요 악화 요인으로 지목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물가 상승' 응답비율이 높아졌으며, 40대는 '소비지출 감소'가, 60대는 '세계경기 하락'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별로 차이

○ 2019년 8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로 전월 대비 0.5%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1.1%보다는 0.9% 하락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9년 4월 0.7% → 5월 0.7% → 6월 0.9% → 7월 0.7% → 8월 0.2%

(단위: %)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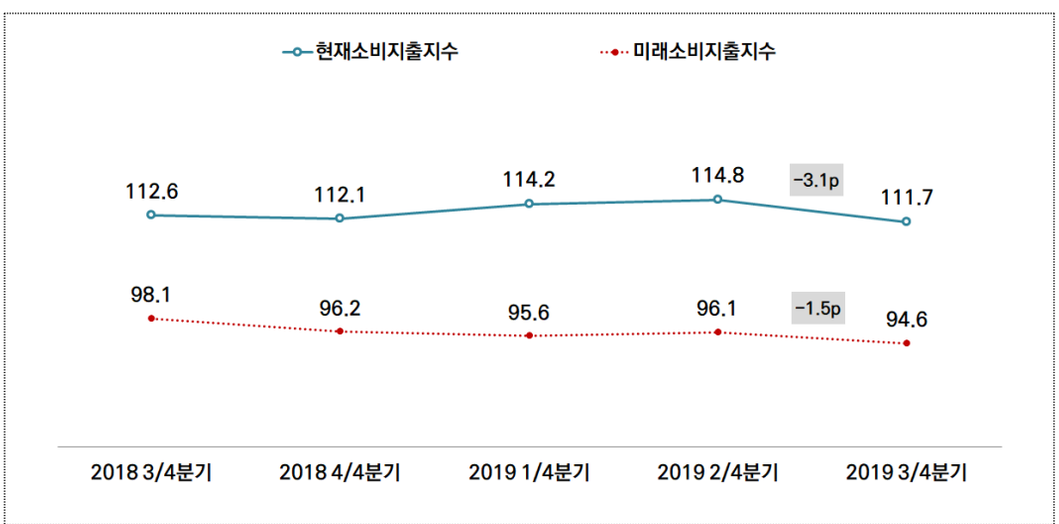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감소

○ 2019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1.7로 전 분기 대비 3.1p 하락

- 2분기 연속 상승하였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3/4분기 3.1p 하락했지만, 2014년 1/4분기부터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만 1.5p 소폭 상승하였고, 2,400만~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9.9p)하는 등 나머지 모든 소득구간에서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40대(0.8p)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 2019년 3/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4.6으로 전 분기보다 1.5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4,800만~6,000만 원 미만 가구만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30대(0.6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

○ 2019년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만 0.8p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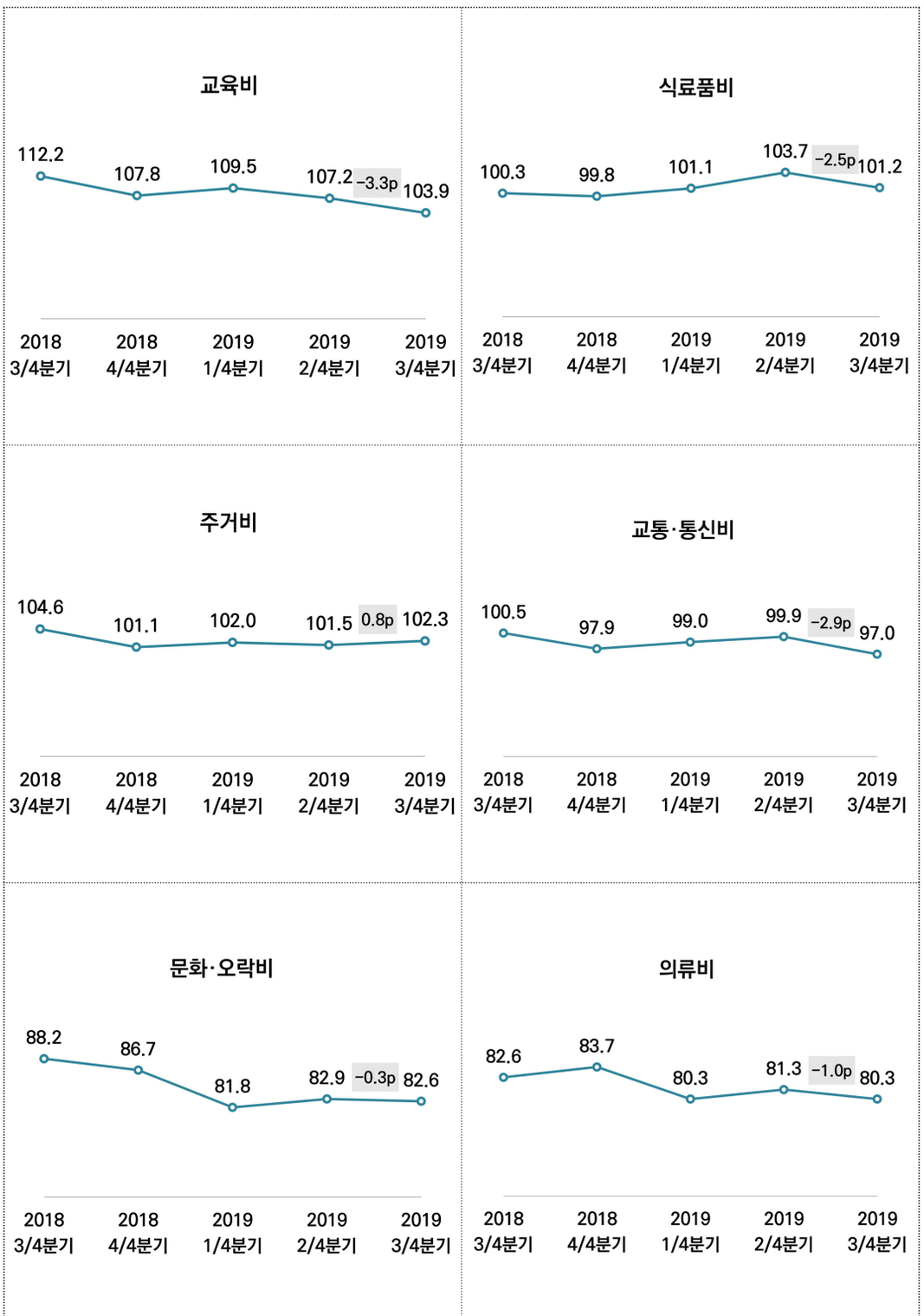
- 3/4분기 '주거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0.8p 소폭 상승하며 기준치 이상인 102.3을 기록

○ 2019년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이 모두 소폭 하락

- 3/4분기 '교육비' 지수는 103.9로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3.3p)하였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3/4분기 '교통·통신비' 지수도 전 분기보다 2.9p 하락한 97.0을 기록
- 3/4분기 '식료품비' 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2.5p 하락했지만 기준치(100) 이상인 101.2를 기록하며 올 1/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
- 3/4분기 '의류비' 지수는 전 분기에 견줘 1.0p 하락한 80.3으로 여전히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치 유지
- 3/4분기 '문화·오락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하락한 82.6 기록

○ 6개 품목 중 상승한 품목은 1개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5개 품목이 모두 하락하였지만 그 폭은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하락 품목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3/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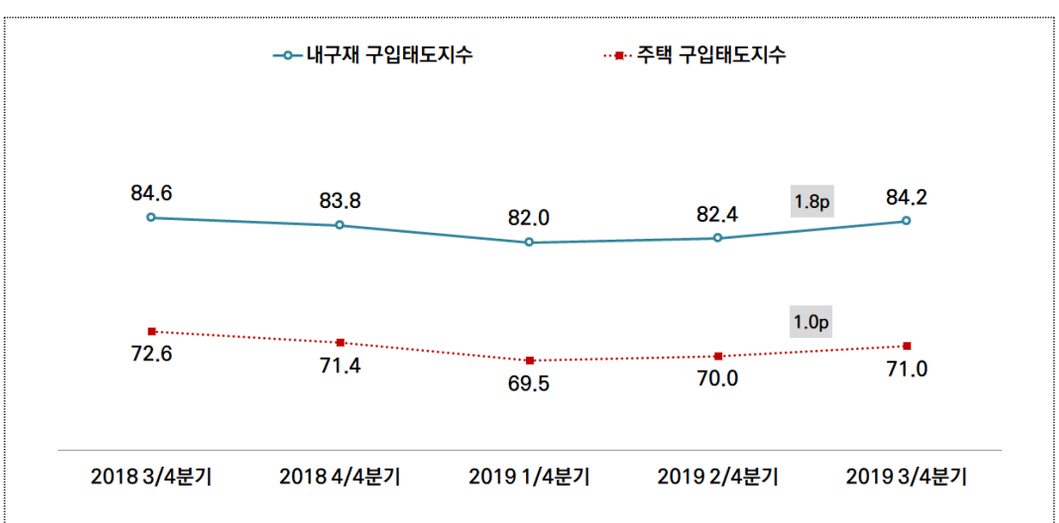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택 구입의사 모두 상승

○ 2019년 3/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8p 상승한 84.2로, 2분기 연속 소폭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만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0.6p 하락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60대만 4.1p 하락하였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

○ 2019년 3/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한 71.0으로, 역시 2분기 연속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6.2p로 가장 크게 오른 반면,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5.9p로 가장 크게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40대 이하는 상승하고, 50대 이상은 하락하는 등 연령대별로 차이
- 각종 부동산 대책 등으로 답보 상태였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지난 분기 상승으로 돌아선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소폭 상승
- 2019년 7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과 같은 105.9로 하락세가 멈추고 최근 3개월 연속 답보 상태(2019년 3월 106.2 → 4월 106.0 → 5월 105.9 → 6월 105.9 → 7월 105.9)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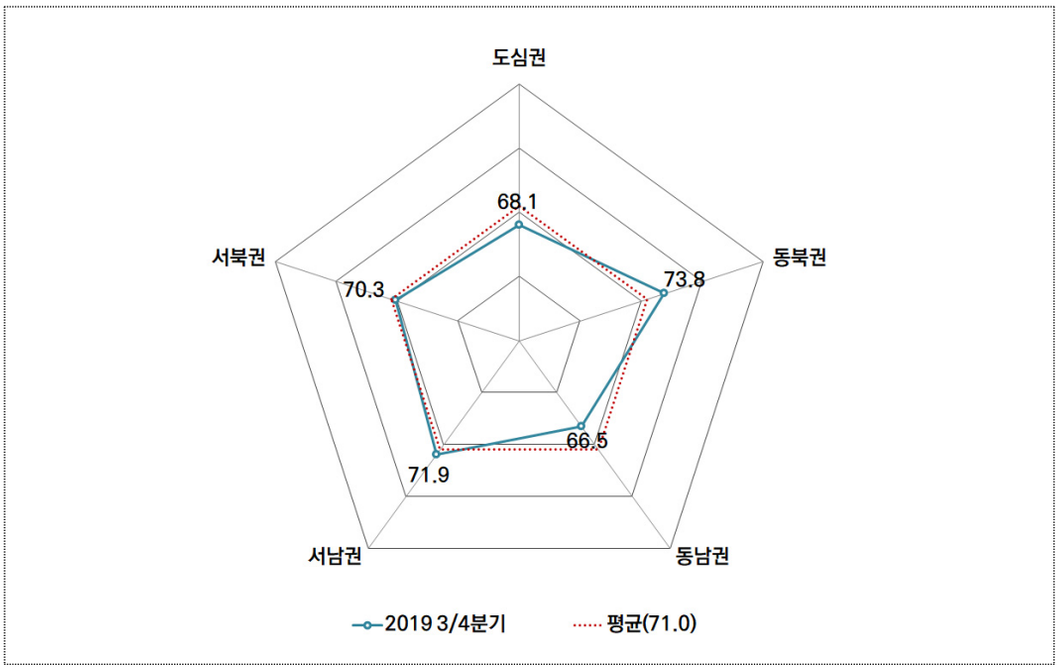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서남권·동남권에서 소폭 상승

○ 2019년 3/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4.4p로 가장 크게 상승

- 서남권은 전 분기 대비 4.4p 상승한 71.9로 나타났으며, 서남권 외에는 동남권이 소폭(1.1p) 상승
- 동남권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66.5를 기록하며 전체 권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서남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소폭 하락

- 서북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7p 하락한 70.3을 기록하였고, 도심권은 2.1p, 동북권은 0.6p 각각 하락
- 여전히 모든 권역에서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0대 수준에 머무르며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대다수 시민의 주택구입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물가예상지수는 하락,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소폭 상승

○ 2019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2.0으로 전 분기 대비 0.6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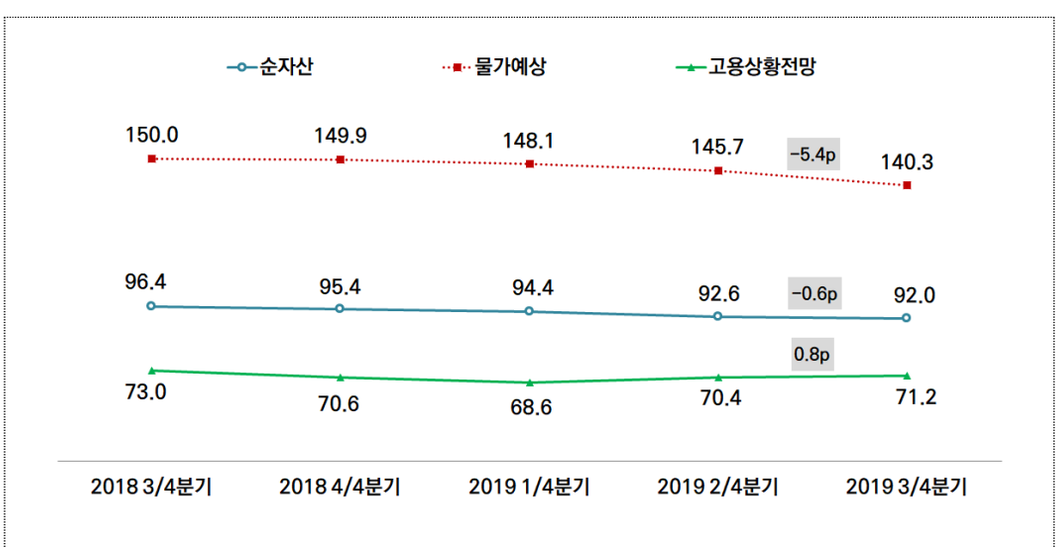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2.7%), '금융자산이 줄었다'(16.0%), '지출이 늘었다'(15.3%)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만~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7,200만 원 이상 가구의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소득이 줄었다'가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2019년 3/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40.3으로 전 분기보다 5.4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2018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높은 수준 유지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전 분기 대비 13.6p로 가장 크게 하락

○ 2019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1.2로 전 분기보다 0.8p 상승

- 「고용상황전망지수」가 2분기 연속 소폭 상승하며 70대 유지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0.1p로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전 분기 대비 7.7p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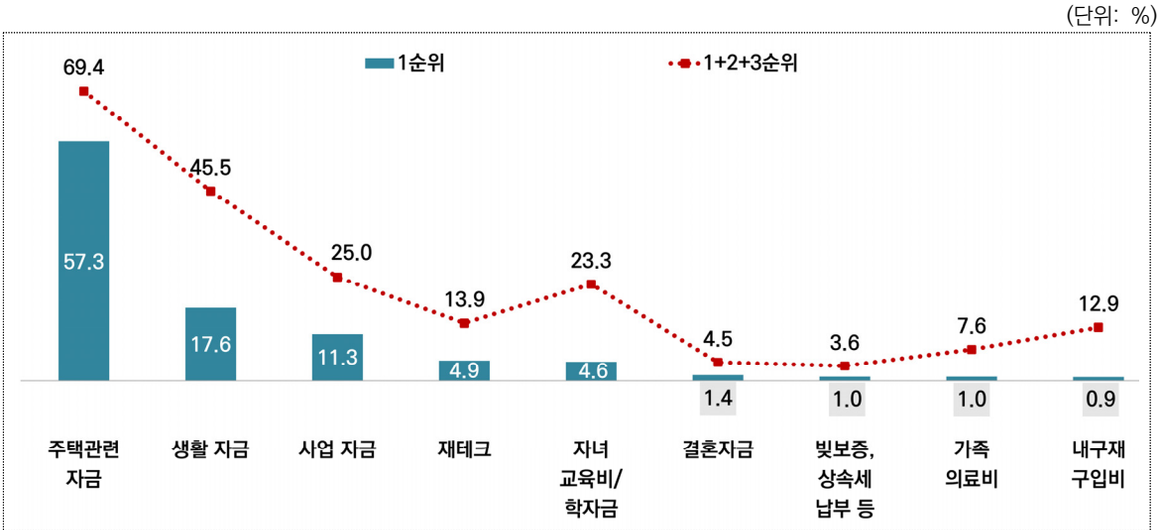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에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61.5%로 전 분기 대비 2.4%p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는 50대가 64.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63.0%), 30대 이하(62.1%), 60대(53.9%)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22.0%로 전 분기 대비 0.1%p 상승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2.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29.0%), '상환 안 함'(8.9%)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관련 자금'(57.3%)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7.6%), '사업 자금'(11.3%), '재테크'(4.9%), '자녀 교육비·학자금'(4.6%)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가운데, 2,400만~3,600만 원 미만 가구는 '생활 자금' 비중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주택관련 자금'이 75.1%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도 '주택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9.4%, 45.5%로 가장 높은 수준

(단위: %)



[그림 14]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추석 경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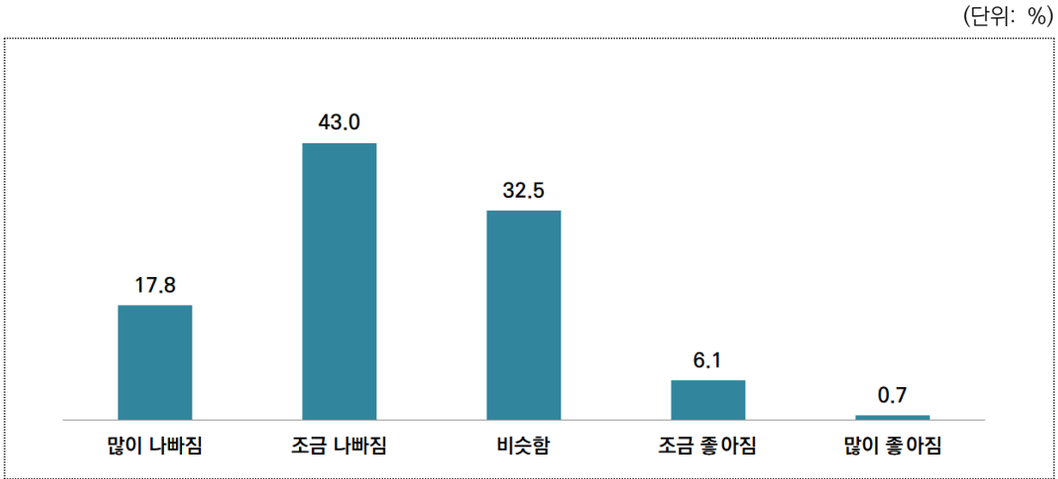
▌추석 민생안정 대책 1순위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올 추석경기는 작년보다 좋지 않을 듯, 추석 지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 서울시민의 60.8%는 올해 추석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올해 추석경기는 '작년 추석보다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작년 추석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2.5%로 조사
- 올해 추석경기가 '작년 추석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6.8%에 불과

(단위: %)



[그림 15] 작년 대비 올해 추석 경기 전망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 조사 대상 가구의 올해 추석 지출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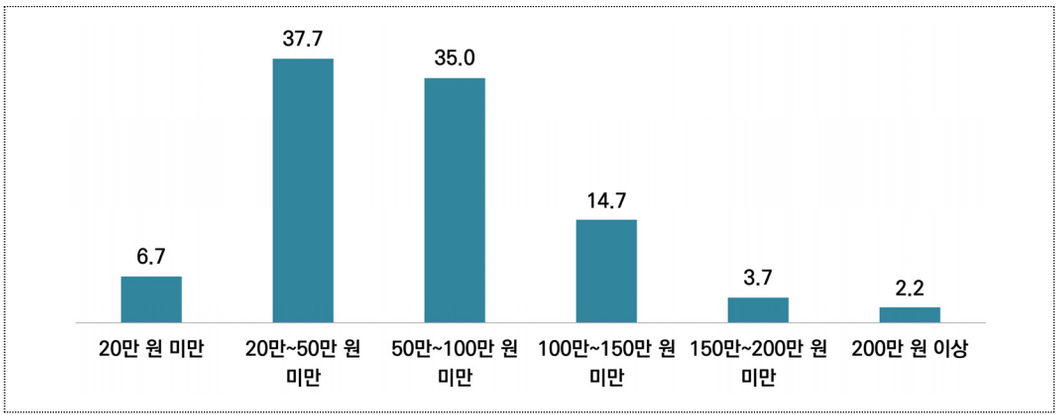
- 올해 추석 지출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이 64.2%를 차지
- 올해 추석 지출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은 13.9%이고,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나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

서울시민의 올해 추석 예상 지출액은 '20만~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편

○ 올해 추석의 예상 지출액은 '20만~50만 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그다음은 '50만~100만 원 미만'(35.0%), '100만~150만 원 미만'(14.7%) 등의 순
- 추석의 예상 지출액은 추석 명절과 관계없는 국내외 여행경비를 제외하고, 추석 상차림비, 명절 선물비, 가족 및 친·인척 용돈, 귀성·귀경 경비 등을 포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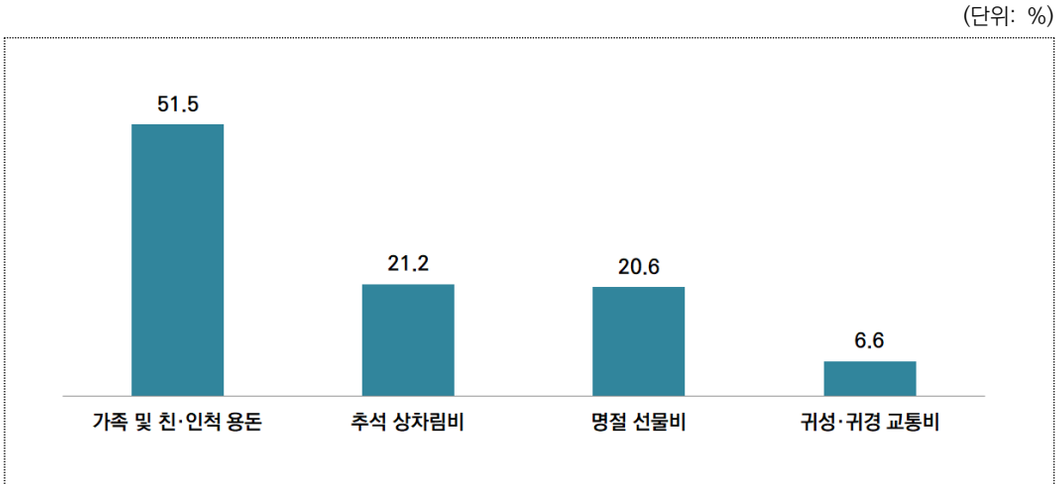


[그림 16] 올해 추석 예상 지출 총액

○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이 51.5%로 1위

- 그다음은 '추석 상차림비'(21.2%), '명절 선물비'(20.6%)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그림 17]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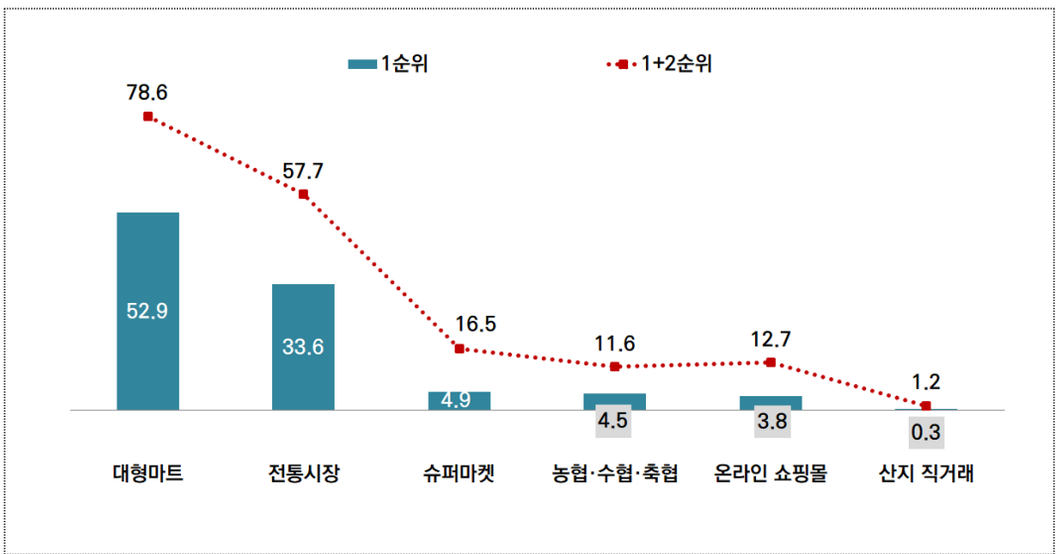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주로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

○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는 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52.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통시장'(33.6%), '슈퍼마켓'(4.9%), '농협·수협·축협'(4.5%), '온라인 쇼핑몰'(3.8%)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3,600만 원 미만 가구만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높았으며, 나머지 가구에서는 '대형마트'가 높게 조사

- 연령별로 보면 60대만 '전통시장'이 49.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1위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대형마트' 선호
- 1~2순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각각 78.6%와 5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단위: %)



[그림 18]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

올해 추석 계획은 대부분 고향 방문, 방문객 응대

○ 올해 추석 계획으로는 '고향 방문 또는 방문객 응대'가 75.3%로 가장 높았고, '휴식'을 취한다도 26.2%를 차지

- 또한 응답자의 1.8%는 '국내여행'을, 1.4%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

추석 여행 떠나는 시민은 평균 3.74명이 4.36일로 계획

○ 추석에 여행을 계획한 서울시민의 여행 일정은 '3일'이 40.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일'(20.2%), '2일'(18.3%), '6일 이상'(13.5%) 등의 순

- 해외여행은 '5일'이 39.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6일 이상'(30.6%) 등의 순
- 국내여행은 '3일'이 62.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2일'(32.7%)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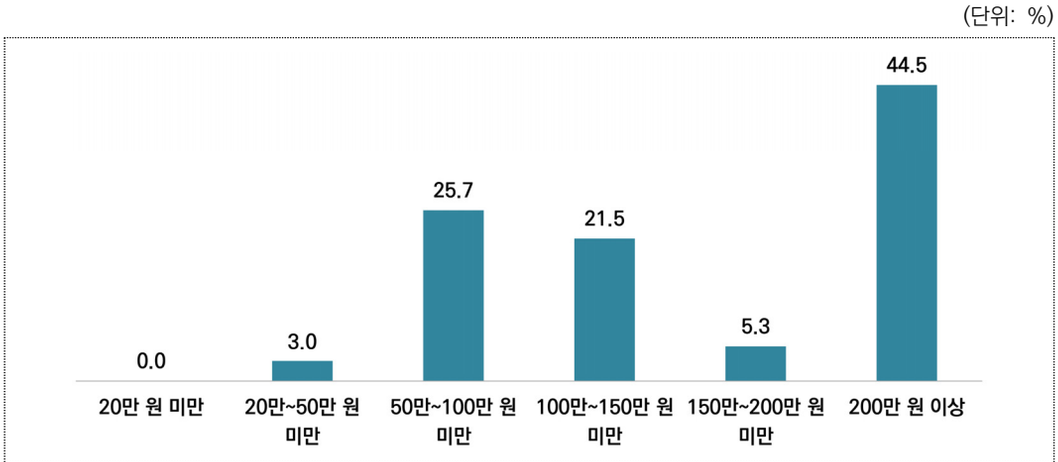
○ **여행 인원은 '2명'이 31.4%로 가장 많고, '3명'이 26.5%, '6명 이상'이 18.6%를 차지**

- 해외여행은 '2명'이 41.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명'(30.1%), '6명 이상'(11.7%) 순
- 국내여행은 '6명 이상'이 24.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2명'(23.8%), '3명'(23.7%) 순

○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여행 경비는 평균 217.7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0.7만 원 수준**

- 여행 경비는 '200만 원 이상'이 44.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만~100만 원 미만'(25.7%), '100만~150만 원 미만'(21.5%) 등의 순
- 해외여행 경비는 평균 344.1만 원(1인당 평균 124.6만 원), 국내여행 경비는 평균 118.0만 원(1인당 평균 28.1만 원)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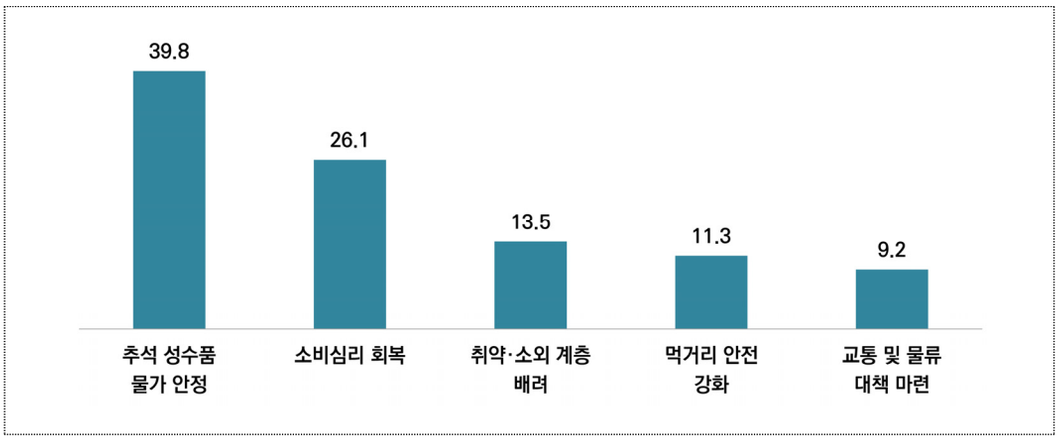
[그림 19] 추석 연휴 여행 때 예상 경비

추석 민생안정 위해 가장 주력할 과제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의 응답비율이 3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그다음은 '소비심리 회복'(26.1%), '취약·소외 계층 배려'(13.5%), '먹거리 안전 강화'(11.3%), '교통 및 물류 대책 마련'(9.2%) 등의 순으로 조사
- 연령에 관계없이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위도 모두 '소비심리 회복' 지목

(단위: %)



[그림 20]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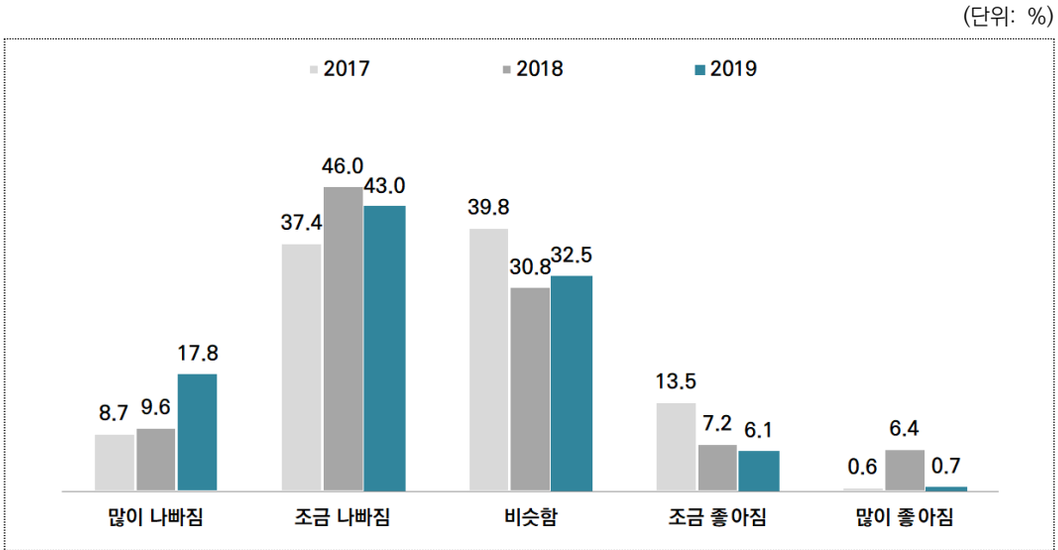
▌추석 경기 전망 3년(2017~2019) 추이

3년간 전년 대비 추석 경기 전망은 점점 나빠지는 추세

○ 전년 대비 추석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017년 46.1%에서 2019년 60.8%로 증가

-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서 6.8%로 감소

(단위: %)



[그림 21] 작년 대비 올해 추석 경기 전망(2017~2019)

주: 2017년 1,013가구, 2018년 1,013가구, 2019년 1,200가구 대상

○ 전년 대비 추석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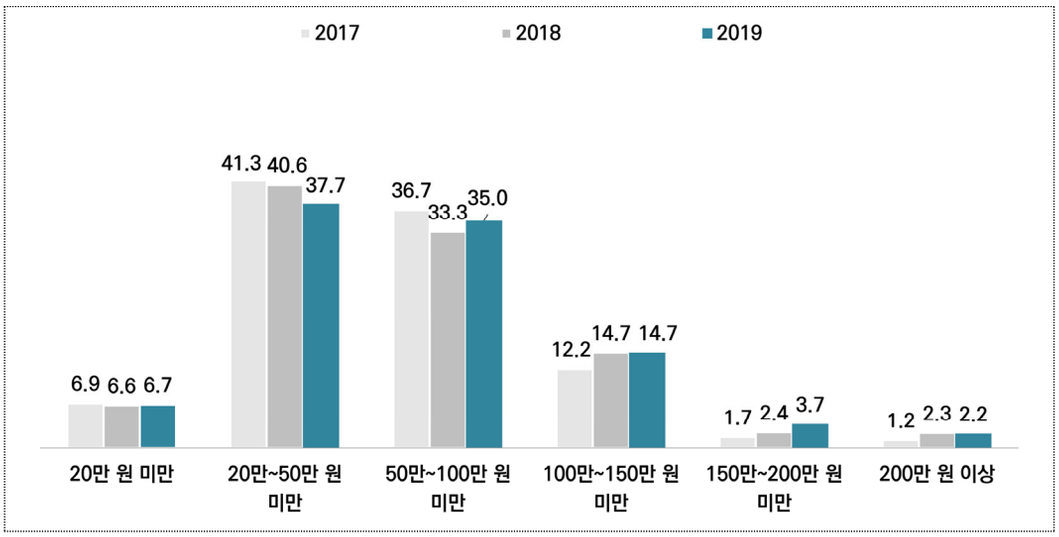
- 추석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은 2017년 25.0%에서 2018년 21.7%, 2019년 13.9%로 점점 감소
- 반면 추석 지출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은 2017년 12.3%에서 2018년 18.0%, 2019년 22.0%로 증가

서울시민의 추석 예상 지출액은 점점 증가

○ 추석의 예상 지출액은 2017년 기준 '20만~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2019년은 '50만~100만 원 미만'도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

- '20만~50만 원 미만'의 응답비율은 2017년에 41.3%로 가장 높았지만, 2019년 37.7%까지 떨어져 '50만~100만 원 미만'(35.0%)과 비슷한 수준
- 100만 원 이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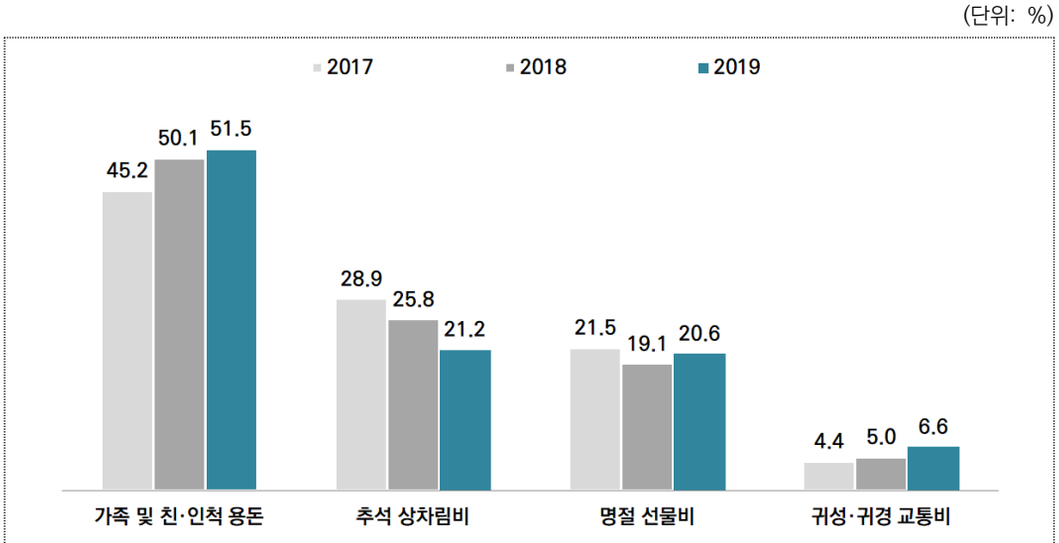
[그림 22] 올해 추석 예상 지출 총액(2017~2019)

추석 상차림비는 점차 감소하고 가족·친·인척 용돈은 증가

○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이 점차 증가하고 '추석 상차림비'는 감소하는 추세

- '가족 및 친·인척 용돈'은 2017년 45.2%에서 2019년 51.5%로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추석 상차림비'는 28.9%에서 21.2%로 감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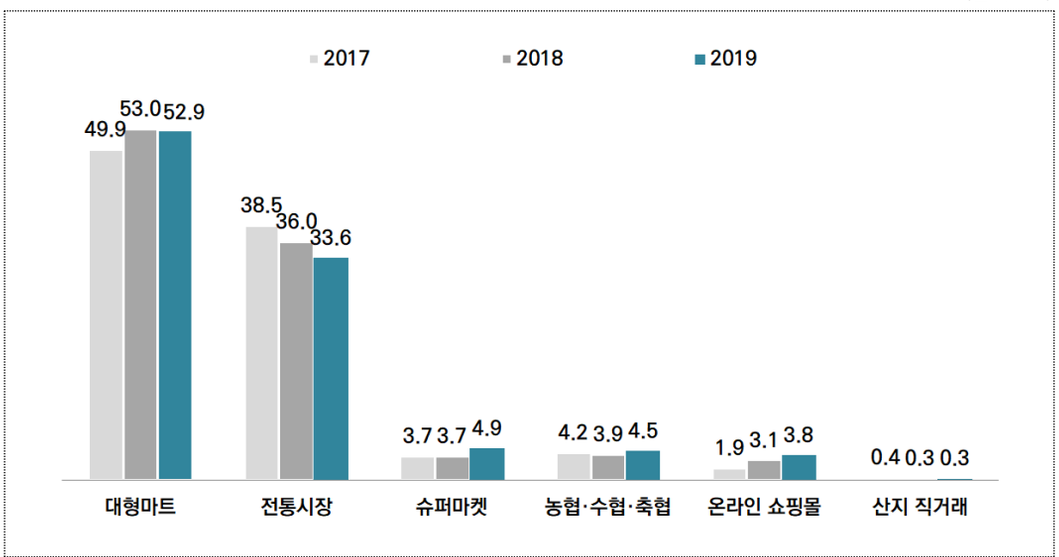


[그림 23] 추석 준비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2017~2019)

○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로 대형마트는 정체, 전통시장은 감소 추세

- 1순위 기준으로 '대형마트'가 3년간 여전히 1위로 나타났지만, 2018년에 비해 2019년 0.1%p 소폭 감소하는 등 정체 상태
- 전통시장은 2017년 38.5%에서 2019년 33.6%로 4.9%p 하락
-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은 소폭 증가

(단위: %)



[그림 24] 추석 상차림 제품 구입장소(2017~2019)

추석 계획은 연휴 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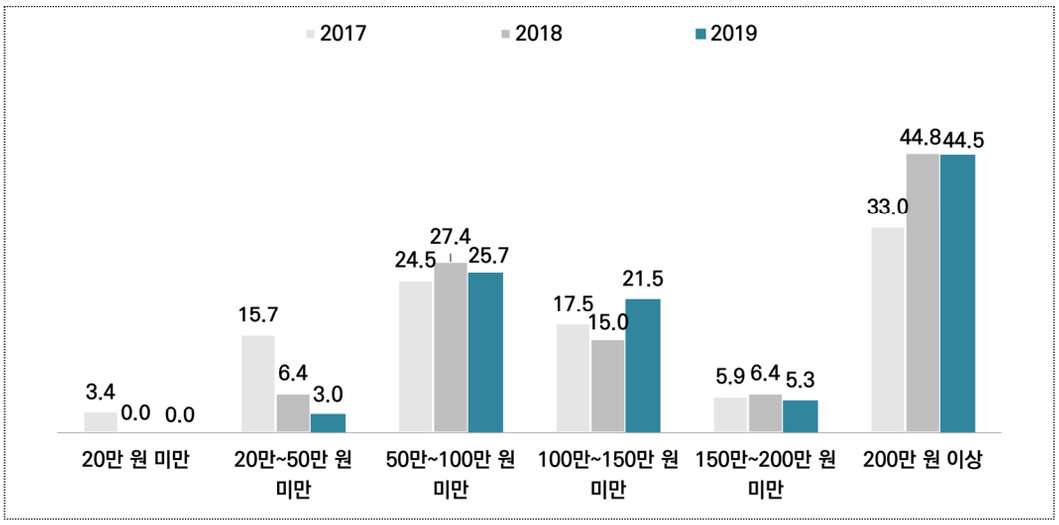
○ 추석 계획은 연도별로 증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휴 기간에 따라 매년 유동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추석 여행 경비는 점차 증가

○ 추석 여행 경비는 50만 원 미만이 줄어들고 50만 원 이상이 증가하는 등 대체로 증가세

- 여행 경비 역시 연휴기간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등에 맞추어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0만 원 이상'이 크게 상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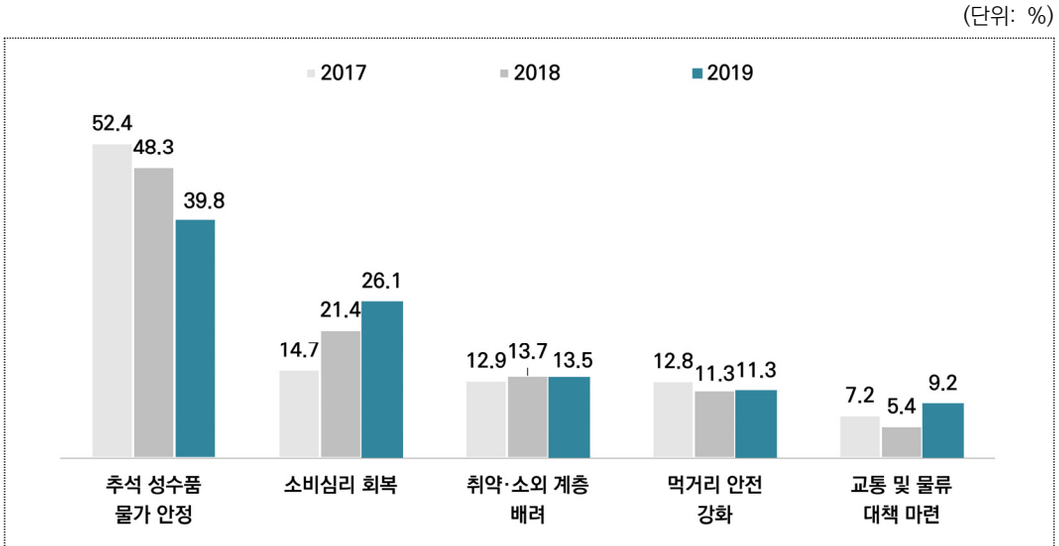
[그림 25] 추석 연휴 여행 때 예상 경비(2017~2019)

추석 민생안정 과제로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은 감소, 소비심리 회복은 증가

○ 서울시민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바라는 과제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이 3년 연속 1위로 나타났지만, 응답비율은 크게 감소

-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의 응답비율이 2017년 52.4%에서 2019년 39.8%로 12.6%p가 감소한 반면, '소비심리 회복'은 14.7%에서 26.1%로 11.4%p나 증가
- 나머지 항목은 비슷한 수준 유지

(단위: %)



[그림 26]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2017~2019)

부록: 2019년 3/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2.5로 전월 대비 3.4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8년 3/4분기	95.9	87.7	93.8	70.4	86.0	84.6	72.6
2018년 4/4분기	94.4	87.4	91.1	69.2	83.6	83.8	71.4
2019년 1/4분기	93.7	87.0	90.8	68.9	82.9	82.0	69.5
2019년 2/4분기	92.7	86.0	88.8	67.8	79.5	82.4	70.0
2019년 3/4분기	92.2	84.4	88.2	66.7	76.2	84.2	71.0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8년 3/4분기	112.6	98.1	96.4	73.0	150.0
2018년 4/4분기	112.1	96.2	95.4	70.6	149.9
2019년 1/4분기	114.2	95.6	94.4	68.6	148.1
2019년 2/4분기	114.8	96.1	92.6	70.4	145.7
2019년 3/4분기	111.7	94.6	92.0	71.2	140.3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임(2019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19년 8월 5일~8월 23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